

## KCID · KSAE 힘을 모아 어려움을 넘자



이 정 재

(ljj@snu.ac.kr)

한국농공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한** 국관개배수위원회(KCID)는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의 한국 본부로서 농업용수개발사업과 관련된 관개배수 분야의 기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이룩한 놀라운 관개배수 관련기술과 성과들을 국제농업 수리분야에 알리는 일에 많은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농공학회 회장으로서 “한국관개배수소식”지에 인사말로 KCID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농공학회(KSAE)는 2007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지천명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국농공학회는 1957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농업공학 전반의 기술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한국관개배수위원회의 회원들이 한국농공학회의 농업수리관련 분과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농업토목사업을 되돌아 볼 때 한국관개배수위원회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농업용수개발사업 및 배수개선사업은 지난 50년여 동안 우리의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 중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분야였습니다. 한국의 생산기반을 현대화하고 안정된 용수공급의 기틀을 마련하여 논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물 시름을 많이 덜어 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성과를 내는데 있어 한국관개배수위원회 회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탁수를 보는 듯 전망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한·미 FTA, 농촌의 고령화 그리고 도농간 소득격차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의 영향권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관개배수분야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투명한 현실속에서 농업 농촌의 환경문제를 해결

하면서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기술적인 도전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농촌에서의 물 문제는 일차적으로 관개배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국가 기반 자연자원으로서의 수자원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기를 강요하고 있으며, 농업용수의 과다 사용으로 빚어지는 타 목적용수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은 한국농공학회와 한국관개배수위원회가 같이 힘을 합하여 차근차근 노력하면 좋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관개배수위원회와 한국농공학회의 모든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공학분야의 선배들이 국가 식량 생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젊음을 바친 것처럼

지금 우리 세대는 새로운 세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농업 농촌기반 기술과 지식 창출을 위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국농공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공과 사를 냉철히 정리하면서 다가오는 반세기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에 어깨가 무거운 짐을 느낍니다. 이 부담을 한국관개배수위원회 회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많이 덜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계와의 교류속에서 성장해야 하는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할 때 한국관개배수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그 동안 수행하여 온 역량을 한국농공학회와 더불어 더욱 성장시켜 미래 농업 수리분야를 이끌어 갈 견인차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